

2018.6.

훈민정음 어제서(御製序)의 올바른 이해와 한글 창제의 목적

송기중(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지난 1백여 년간 《해례본》훈민정음》의 세종 어제서(御製序)의 연구·주석 번역과 번역만의 일반 번역이 현대국어로 최소 50종은 출판되었다. 영어·일본어 등 외국어로도 여럿 발표되었다.

어제서는 본문이 54자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서문이다. 대다수의 어제서 번역문들은 일부 자구(字句)의 번역어 선택만 다를 뿐, 전반적인 내용은 같다. 즉, 거의 모든 번역문들은 대동소이하게 “국어는 중국어와 달라서 한자로 잘 표현할 수 없다. 그리하여 무식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이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다....”이다. 정음 창제의 목적이 “‘뜻’(의미)의 표기·전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훈민정음》의 본문은 시종(始終) 국어의 음성체계와 그 체계에 상응하여 체계적으로 제작하는 글자에 대한 설명이다. 〈정인지서문〉에서는 새 문자가 배우기 쉽고 ‘소리’(음성과 자연의 소리)의 표기에 탁월함을 찬탄하였다. 해례나 정인지서문이나 ‘음성의 표기’와 관계되는 설명들뿐이다. “‘뜻’(의미)의 표시-전달에 우수한 문자”라는 설명은 없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거의 모든 번역 어제서에는 정음 창제의 근본 목적인 “국어 음성의 표기에 적합한 문자”라는 의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어제서에 그러한 의미가 표현되어 있다. 다만 지금까지 절대 다수의 연구자들이 한 글자를 잘못 해석하여 어제서의 번역문에서 “국어 음성의 표기”라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졌다. 즉, “제 뜻을 펴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로 해석하는 어구에서 ‘사람’에 대응하는 ‘者’(자)자이다. 이 한자의 음절은 현대국어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부정칭 의존대명사로만 사용되기 때문에(예. ‘이 자’, ‘그 자’, ‘저기 가는 자’) 어제서 연구자들이 ‘사람’의 의미로만 이해한 듯하다. 그러나 한문에서는 다른 명사를 지칭하는 대명사(고유어 ‘-것’, ‘-따위’)로도 빈번히 사용된다.

어제서에서 ‘者’를 ‘語音’(어음)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이해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에는 그 정황(음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것’들이 많다”로 해석해야 어제서의 의미가 순조롭게 통한다.

어제서 번역문들에는 연구·번역자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고 번역한 자구(字句)들이 몇 가지 있다. 본고에서 그 자구들에 대한 필자의 견해와 기타 자구들의 해석을 제시한다.

주요 자구: 정음(正音) 語音(어음) 愚民(우민) 言(언) 情(정) 者(자)

1. 서 설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목적을, 우리 학계에서 흔히 ‘어제서’(御製序 ‘임금이 지은 서문’)로 일컬어온, 《(解例本)訓民正音》의 ‘서문’에 분명히 밝히셨다.¹⁾ (이하 ‘어제서’로 지칭한다.)

한문 어제서는 제목을 제외하고 54자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글이다. 지난 110여 년간에 수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이 어제서의 현대어 번역과 주석을 발표하였다.²⁾ 언해본의 어제서가 고등학교 국정국어교과서에 실렸었고, 어제서의 현대어 번역이 백과사전 등 여러 교양서적에 수록되었으며, 인터넷에도 상이한 목적과 형식의 번역·주석이 여러 가지 등재되어 있다. 언해문의 현대국어 번역문이 매일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지면에 설치된 넓은 석판(石板)에 각인되어 있고, 지하 전시관에도 현대어 번역문의 석각(石刻)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하여 어제서의 존재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제서의 일부 자구(字句)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들 간에 아직도 구구하다. 어떤 연구자는 어떤 자구의 자의적(恣意的) 해석에 따라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을 전혀 생소하게 주장하기도 한다.³⁾ 또한 어느 번역문이나 일반 독자가 읽으면서 현대국어 지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거나, 부자연스럽거나,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구절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은 결국 세종대왕께서 어제서에 표현한 진정한 뜻을 현대의 연구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지금까지 발표된 어제서 번역문들에 보편적으로 보이는 연구자의 몰이해, 혹은 오해, 혹은 간과(看過) 사항들을 지적하고, 어제서 자구(字句)의 올바른 의미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진정한 목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 한다. 절대 다수의 현대 학자들은 한문(漢文)의 이해 정도가 깊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필자도 그 중 하나이다), 필자가 본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한자의 해석과 관계되는 사항들을, 비록 한문의 초보적인 내용일지라도 어느 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가급적 포함시켰다. 한문에 능통한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기간된 어제서 번역문의 비교는 정우영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의존하였다.⁴⁾

-
- 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제서의 원문 한문본은 《世宗實錄》 권113(세종28년 9월/1446년 10월조)에, 언해문은 《月印釋譜》 권두에 수록되어 있다. 1940년에 발견된 《(解例本)訓民正音》에는 어제서가 인쇄된 첫 장이 떨어져나가 없었는데, 소장자가 복원하여 붙인 것이라 한다.
 - 2) Lee(2012)에 1907년 4월 5일자 《皇城新聞》에 게재된 주시경 선생님의 해설을 겸한 번역을 위시하여 여러 편의 국문·영문 어제서 번역문을 비교 검토하였다.
 - 3) 근래 어느 학술서(?)에 훈민정음이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창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그것을 어느 사회과학자가 세종대왕의 치적을 의심하는 저술에 인용하였고, 그것을 다시 어느 인기 있는 인터넷 방송인이 언급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훈민정음의 근원에 대해서는 조선시대부터 별의별 사이버 이론, 즉 “일견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닌”, 혹은 “학술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근거를 내세운” 사이버 설명들이 등장했었다. 그러나 1940년 《(解例本)訓民正音》이 발견된 이후 거의 사라졌는데, 아직도 가끔 뜬금없는 황당한 주장이 나타나서 잠시 극소수 호사가들의 말거리가 되곤 한다.
 - 4) 정우영(2018)에는 어제서 번역문 42종을 구절(句節) 단위로 면밀히 비교하여 번역어의 의미에 따라 분류하고, 각 범주에 속하는 번역문의 수효를 밝히고, 기존 번역문에 대한 의견과 정교수의 해석과 해설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정교수의 노작(勞作)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간된 어제서 번역문들을 일일이 찾아서 검토하는 노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정교수께 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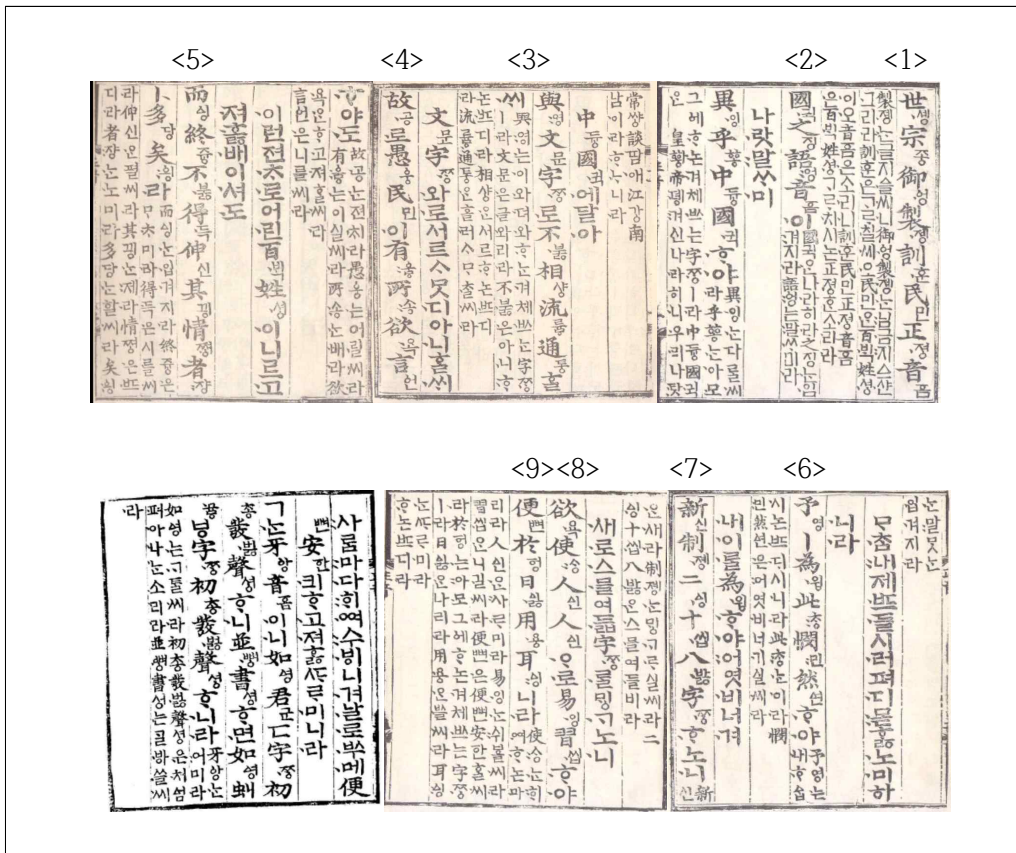
2. 어제서 원문과 현대국어 번역문

2.1. 어제서 원문과 언해문

본고에서 설명 및 참조의 편의상 어제서의 한문 원문을 9개 어구(語句)로 나누고 번호를 붙였다. 대응하는 언해문의 구절과 병치하여 보인다.

- | | |
|-------------------|---|
| <1> 訓民正音 | 世宗宗御製製訓民正音音 |
| <2> 國之語音, 異乎中國. | 나랏말싸미 등·국·에 달·아 |
| <3> 與文字不相流通. | 文·문·字·와·로·서·르·스·뉘·다·아·니·흐·씨 |
| <4> 故愚民有所欲言 | ·이런·전·츠·로·어·린·百·백·姓·성·이·니·르·고·져·흥·배·이·셔·도 |
| <5> 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 ·마·츄·내·제·쁘·들·사·리·피·다··몬·흥·노·미·나·라 |
| <6> 予爲此憫然 | ·내·이·를·爲·왕·하·야·어·엿·비·너·겨 |
| <7> 新制二十八字. | ·새·로·스·물·여·늬·字·쯔·를·땡·又·노·니 |
| <8> 欲使人人易習. | 사·름·마·다··하·여·수·비·나·겨 |
| <9> 便於日用耳. | ·날·로··부·메·便·편·安·안·키·하·고·져·흥·쓰·르·미·니·라 |

본고에서 인용하는 언해본의 협주를 참조할 수 있도록 원문의 사진을 보인다. 번호는 위와 같은 어구 번호이다.



2.2. 어제서의 현대국어 번역문

2.2.1. 광화문에 전시된 번역문

어제서의 대표적인 현대국어 번역문으로 광화문 세종대왕상 지상·지하에 전시된 것을 선택하여 전재한다. 이 번역문은 세종대왕상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에서 틀림없이 전문가에 의뢰하여 신중히 선택하였을 것이며, 광화문에 전시함으로써 일반에 가장 널리 알려진 어제서 현대국어 번역일 것이다.

- <1> 생중영제훈민정흠
- <2>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 <3>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 <4>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 <5>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 <6> 내가 이것을 가엾<엿>게* 생각하여
- <7>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 <8>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 <9>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광화문 지상에 전시된 번역문에는 ‘엿’이고 지하 전시물에는 ‘엽’이다.

2.2.2. 본고의 해석에 의한 번역문 시안(試案)

본고에서 제시하는 해석에 의한 번역어는 밑줄을 쳤고, 어제서 본문에는 부재하지만 의미를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추가한 단어들은 대괄호[]로 묶었다.

- <1>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소리[글자]
- <2> 우리나라의 말소리((語音/어음)가 중국[의 말소리]와 달라서
- <3> 한자로 잘 통할 수 없다.
- <4> 그런 까닭에 우리 백성들이 제언(提言)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 <5> 그 뜻을 [한자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 <6>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서
- <7> 스물여덟 글자를 새로 만들었다.
- <8> 사람마다 쉽게 익히게 하여
- <9> 일상 쓰는 데 편리하게 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일 뿐이다.

**제언(提言): 생각이나 의견을 내놓음.

3. 어제서의 해석과 주석

3.1. 기간 번역문들에 보이는 공통적인 문제점들

지난 100여 년 간에 어제서의 현대국어 번역문이 여러 가지 형태로 수없이 출판되었고, 영어·일본어 등 외국어로도 출판되었다. 다수 번역문들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문제점 1.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근본 목적이 “한자로 표기하기 어려운 국어음의 표기”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제서가 ‘國之語音’(국지어음 ‘우리나라의 말소리’)으로 시작한다. ‘國語’(국어 ‘우리나라 말’)가 아니다. <정인지의 서>에 한자를 빌어 중국어와 다른 언어를 표기하는 것을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로 비유했고, 정음으로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뉘치며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이 글자를 가지고 적을 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⁵⁾ 모두 ‘어음’과 ‘소리의 표기’에 관계되는 설명이다. ‘의미’의 표현이나 전달에 관한 설명이 아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이 ‘국어음의 표기’라면, 여기서 ‘국어음’은 일반적인 의미의 ‘국어’(언어)가 아니라 ‘국어 음성’이며, ‘표기’는 문자에 의한 음성의 전사(轉寫)이다. 즉, 구두로 전달하는 말(음성언어)이 아니다. 뛰어난 음성학자⁶⁾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는 그러한 정음 창제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어제서를 지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창제 목적은 어제서에 당연히 표현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어제서에 훈민정음 창제의 근본 목적이 표현되었다면 위에 보인 어제서의 9개 어구 중 <2>-<5> 어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어구들이 지금까지 모든 어제서 연구자들이 고심하고, 구구한 해석을 제시한 부분이다. 현대국어 지식만으로 선후 어구의 순리적(順理的) 연계성을 선뜻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하다.

여하 간에 누구든지, 지금까지 발표된 어떤 번역문이나 읽으면서 ‘국어음의 표기’라는 정음 창제의 근본 목적을 감득(感得)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의 모든 번역문들은 대동소이하게 “국어는 중국어와 달라서 한자로 통할 수 없다. 그리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다.

대다수 어제서 연구자들은 난해한 어구들을, 상식적인 자의(字義)에 의한 자구(字句)의 해석과 연해문만을 참고하여 추정한 듯하다. 정음의 창제목적인 ‘국어음의 표기’와 연관시켜 이해하려고 시도한 연구자는, 세밀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극히 희소한 듯하다.

5) <정인지 서>도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번역은 강신항(2014) 175-177 참고.

6) 세종대왕께서는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든 뛰어난 음성학자이셨다. 현대음성학을 수 십 년 연구한 전문가라도 어느 언어나 방언의 분절음(segments)을 분석·분류하여 음운체계를 확인하고, 그 체계에 따라, 한글과 같이, 1음소-1자(字)이며 실용적인 문자체계를 창안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듯하다!

문제점 2. 한자의 훈(訓)과 자의(字義)와 자구(字句)의 해석

한자는 전통적으로 자형(字形)과 함께, 자의(字義)를 나타내는 훈(訓)과 자음(字音)의 복합어구(複合語句)를 암기하는 방법으로 습득하였다. 예를 들면, 《千字文》에 보이는 ‘天 하늘 천’, ‘地 따지’, ‘玄 가물현’, ‘黃 누르황’ 등이다. 19세기말에 신식(新式) 교육방법이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한자 습득 방법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 후 현재까지도 한문 문헌 연구자들은 보통, 한자를 ‘훈+음’으로 기억하고 한문의 자구(字句)를 우선 그 훈으로 해석한다.

훈은 한자가 표시하는 복수(複數)의 의미 중 하나이다. 당연히 어떤 자구의 해석에서 그 훈의 의미가 적합할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수 연구자들은, 특히 기초 한자의 경우,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훈의 단순 의미로만 해석하고, 사전(字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의미는 고려하지 않는다. 대개 그 문장에서 훈이 시현하는 의미의 적절성 여부는 개념(掛念)치 않는 듯하다. 문헌 번역에는 현대국어에서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당연히 개재될 수 있다는 의식(意識)이 전해 내려왔다

어제서의 어구 <5>에 나타나는 ‘終’(종)자를 예로 들어 본다. 이 글자의 훈-음은 ‘마침 종’으로 전통적으로 ‘마치다, 끝내다’ 의미로 습득했다. 언해문에서 부사형 ‘마침내’로 번역하였고, 절대 다수의 현대국어 번역에서도 ‘마침내’이다.⁷⁾ 그런데 이 부사가 언해문이 작성된 15세기 국어 의식(意識)으로 적절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대국어 번역문에서 문장부사 ‘마침내’는 후행하는 문장 “제 뜻을 펼 수 없는 사람이 많다”와 자연스럽게 호응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 문장에서 그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다. 연구자가 국어 모어자(母語者)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을 터인데, 적절한 다른 단어, 예를 들어 ‘완전히’·‘온전히’ 등, ‘終’자가 표현하는 다른 의미로 이 문장에 적절한 단어로 바꾸지 않았다. 번역문을 읽는 독자들도 ‘마침내’가 이 문장에서 자연스러운 문장부사가 아니라고 당연히 느꼈을 터이지만, 무의식중에 “옛글에서 가능한 표현”으로 수용한다.

몇몇 한자의 훈이 어제서 해석에 치명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 3. 동훈이의(同訓異義)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는 복수 한자들의 훈(訓)이 단일 고유어인 예들이 적지 않다. 예. 語 말쓰어·言 말쓰언·說 말쓰설·話 말쓰화; 聲 소리성·音 소리음 등.

문헌을 해득(解得)할 때 대개의 경우 동훈(同訓) 한자들의 의미를 구별·파악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훈이 표현하는 단순 의미 이상으로 자의(字義)를 해석해야 하거나 그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 한문 문장들이 있다.

어제서의 기존 번역문들에서는 번역자가 동훈이의에 대하여 고심한 흔적이 나타나는 예를 보기 어렵다. 위에 예로 든 ‘말쓰’의 훈을 가진 4자의 자의(字義)는 ‘말’과 관계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호 간에 의미 상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의미가 語는 ‘일반적인 의미의 말’, 言은 ‘자신의 요구나 의견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말’, 說은 ‘무엇을 설명하는 말’, 話는 ‘타인과 나누는 이야기 말’이다. 현대국어에서 상용어(常用語)인 ‘國語’(국어)·‘發言’(발언)·‘論說’(논설)·‘對話’(대화) 등에서 관찰할 수 있다.

7) 정우영(2018) 9면 참고.

어제서에 보이는 ‘言’이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숙지한 연구자는 적절한 현대국어 번역어를 찾는데 상당히 고심하였을 것이다. (아래 참고.)

문제점 4. 어조사(語助辭)의 의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용어 ‘어조사’(語助辭)는 실질적인 의미를 시현하지 않고 실사(實辭) 한자의 의미나 문법적 기능을 변화시키는 한자들의 총칭(總稱)이다. 이들 한자의 훈(訓)은 일률적으로 ‘어조사’이다. 예. 於 어조사어, 乎 어조사호, 也 어조사야 등. 훈의(訓義)가 실사인 한자 중에도 어떤 문장에서는 어조사와 같이 사용된 글자들이 있다. 바로 어제서의 끝 글자 ‘耳’자의 훈은 ‘귀’이지만 여기서는 ‘뿐이다’ 의미의 어조사이다.

전통적 한문교육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미를 시현하는 어조사들에 대한 학습이 일반적으로 소홀하였던 듯하다. 그 전통 때문인지 현대의 대다수 연구자들은 어떤 문장에 등장하는 어조사 한자의 올바른 의미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한자 사전에 제시된 여러 가지 의미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

어제서에도 어조사가 몇 자 등장하는데 기간의 번역문 중에는 당해(當該) 문맥에서 어조사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듯한 예들이 보인다.

문제점 5. 언해문의 고유어

15세기에 언해문을 작성한 사람은 한문 원문의 매자(每字)를 충실히, 그리고 최대한 고유어로, 번역한 듯하다. 그 결과인 듯, 당시 국어로는 자연스럽게 수용(受容)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현대국어 감각으로는 부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보인다. 이는 조선시대 언해문들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국어의 변화로 인하여 현대국어에서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번역문’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비(非)국어적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언해문에 보이는 고유어 번역어의 적절성, 현대국어 대응형들과 의미상의 동질성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에 소홀하였던 듯하다. 여러 번역에서 음상이 동일한 현대국어 단어를 그대로 채택한 ‘말씀’(말씀)과 ‘마침내’(마·춤:내)가 현대국어 번역문의 문장에서는 의미상 부적당함을 누구나 쉽게 감지할 것이다.

3.2. 자구(字句)와 어구(語句)의 해석

위에서 분할하여 보인 어제서의 9개 어구를 순서대로 한 어구씩 설명한다.⁸⁾

<1> 訓民正音 世宗宗御製訓民正音

8) 현존 《訓民正音》은 1책 33장으로 구성되었다. 영인본에서는 원본 각장의 접힌 부분(판심/版心)에 반쪽씩 보이는 장(張) 번호를 대부분 확인 불가능하지만, 본고에서는 출처 제시의 편의상 원본에서 추정·설정할 수 있는 1~33장 번호로, 통상적인 방식, ‘15a5’(제15장 전면 제5행)·‘23b7’(제23장 후면 제7행) 등과 같이 표시한다.

1) 訓民正音(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訓民正音’은 ‘한글’의 최초 명칭이다. 정인지의 서문에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우리 전하께서 정음28자를 창제하시어, 간략하게 격식과 의미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시었다)라 서술되어 있어서, ‘訓民正音’이 창제 당시에 붙인 공식명칭이었고, 동시에 ‘正音’으로 약칭하였음을 “正音二十八字” 어구로 알 수 있다.

2) 訓民(훈민). 백성을 가르치는

문자 그대로 평이하게 ‘백성을 가르치다’로 이해하여 후행하는 명사 ‘正音’을 수식하는 관형형 ‘백성을 가르치는/가르치기 위한’이다. 언해문 협주(挾注)에는 “백성 가르치시논”으로 주어공대(主語恭待) 선어말어미 ‘-시-’가 첨가 되었다.

3) 正音(정음). 바른 소리, (한글의 명칭)

언해문의 협주에는 한자 매자(每字)의 뜻을 고유어로 보이고 이어서 단어의 의미를 풀이하였다. 그런데 ‘正’자는 자별(字別) 고유어 뜻이 보이지 않고, 이어서 제시된 ‘訓民正音’의 풀이에 ‘正音’을 ‘정정훈소리’라 하였다.⁹⁾ 즉, ‘正’자의 번역만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이다. 언해자(諺解者)가 이 문맥에서 ‘正’자의 의미를 시현하는 마땅한 고유어 단어를 찾지 못했거나, 혹은 한자어 ‘정(正)’이 그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제서의 한문 원문과 언해문의 일자일구(一字一句)가 신중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正’자의 고유어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正’자의 기본 의미는 ‘바르다’와 ‘옳다’이다. ‘正音’에서 ‘正’은 당연히 ‘바른’으로, ‘바른 소리’, 즉 ‘기준이 되는 소리’, ‘표준이 되는 소리’의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하다.¹⁰⁾

‘正音’은 ‘바른 소리’의 의미로 훈민정음 28자로 표시한 ‘국어의 어음(음운)’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訓民正音》, 《世宗實錄》 등 모든 문헌에서 ‘새 문자의 고유명칭’으로만 사용되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고유명사들이 원래 보통명사 혹은 보통명사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사실이 참고가 된다.¹¹⁾

4) 諺文(언문). 속된 글

정음 창제시 부터 등장하여¹²⁾ 20세기 초까지 일반에 통용된 ‘한글’의 대표적 명칭이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술에서 간혹 ‘諺字’(언자) 혹은 ‘半切’(반절)이 보이는데, 일반에 통

9) 어제서의 어구 <6>에 보이는 ‘爲’자에도 고유어 대응어가 제시되지 않았다.

10) 어떤 연구자는 ‘정음’을 ‘옳은 소리’로 해석하고 중국어음을 의미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내 놓기도 하였다. 물론 근거 없는 객설(客說)에 불과하다.

11) 姜信沆(2003/2007)에서 우리나라·중국·일본의 문헌에 등장하는 ‘正音’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12)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최만리의 상소문과 《保閑齋集》(보한재집, 신숙주 문집)에 ‘諺文’이 보인다. 강신항(2014) 198, 245면 참고.

용된 명칭은 아니었다. 19세기 말 고종시대에 ‘國文’(국문)이란 용어가 등장하였고, 20세기 초에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이란 명칭을 창안하셨다고 한다.¹³⁾

<2> 國之語音異乎中國. 나·랏·말·쓰·미·둥·꺈·예·달·아

해석: 우리나라의 어음(말소리)이 중국의 [어음과] 달라서

1) 語音(어음). 어음, 말소리

‘語音’은 현대국어 ‘어음’(語音)과 같이 구성 한자의 기본 의미인 ‘언어+음’/‘말+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국어음’·‘영어음’과 같이, 특정 언어의 음성 형식(phonetic forms, sounds)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현대에 어제서를 연구하여 발표한 학자들은 거의 모두가 ‘語音’(음성 sound)과 ‘語’(언어 language)를 분명히 구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번역에서 여기 ‘어음’을 ‘언어’와 같은 의미, 즉 ‘우리나라 말’ 혹은 ‘국어’로 해석하였다. 후행하는 어구들을 ‘이해한 내용’과 호응하는 해석을 위하여 여기 ‘어음’의 의미를 바꾸었거나, 혹은 언해문의 ‘말씀’을 따라 ‘말/언어’로 번역한 듯하다. (아래 참고.)

그러나 첫 구절에 등장하는 ‘語音’은 어제서의 화제(話題)로 이해해야 온당하다. 즉, 후행하는 어구들은 ‘語音’과 관련되는 내용들이다. 이를 ‘언어/국어’로 해석했기 때문에 어제서의 번역문들에 앞 뒤가 순조롭게 호응하지 않는 구절이 나타난다. 아래 설명한다.

2) :말씀.

언해문에서 ‘語音’을 ‘:말씀’으로 번역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訓蒙字會》와 《千字文》에 수록된 ‘말’과 관계되는 여러 한자의 훈(訓)은 모두 ‘말씀~말씀~말씀’이다: 즉, “言 말씀언”, “話 말씀화”, “辭 말씀사”, “語 말씀어”, “談 말씀담” 등이다. 그로 미루어 조선시대에는 이 단어가 현대국어 ‘말씀’과 같은 경어(敬語)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¹⁴⁾

‘말’과 ‘말씀’. 이송녕(1986)은 어제서의 ‘語音’이 언해문에 ‘말씀’으로 번역된 것에 주목하여 ‘말’과 ‘말씀’의 의미상 차이를 고찰한 논문이다. 《杜詩諺解》·《法華經諺解》 등 언해서에서 ‘談’·‘言’·‘話’·‘語’ 등字의 언해 ‘말’ 혹은 ‘말씀’의 출현 양상을 상고(詳考)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a) ‘언어일반(言語一般)’인 것이 ‘말’이다. 이것은 언어의 의미 사상면을 주로 한다. 발어하지 않아도 ‘말’은 존재하며, 사상전달의 내용이 곧 ‘말’이다.

(b) ‘말씀’은 ‘말’의 행사(行使) 면으로서 발어(發語)의 음성을 주로 삼는다. ‘말씀’은 ‘말소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이 일반이다. 따라서 ‘문자의 字音’은 ‘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관한 것이 된다.

13) ‘한글’의 다양한 명칭에 대해서는 홍윤표(2006) 63-89면 참고.

14) 강신항(2014) 182면, 각주244 참고.

이상 이승녕 스승님의 설명은 선생님 특유의 방대한 자료에 근거한 귀납적 결론이라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이는 위에 언급한 《訓蒙字會》와 《千字文》에 수록된 동훈자(同訓字)들의 사정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즉, 고유어에는 “말을 사용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표현하는 별개의 단어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모두 ‘말씀~말씀’ 한 단어로 표현하였던 듯하다. 현대국어에서도 고유어는 명사로 ‘말’, 동사로 ‘말하다’ 뿐이고 말과 관계되는 다른 표현들은 모두 한자어이다.¹⁵⁾

‘말씀’은 분명히 어간 ‘말’에 파생접사가 첨가된 형태인데 ‘씀/슴’은 어원이 ‘쓰-/쓰-’(用) + ‘-口’(동명사어미)로 추측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말씀’의 원의는 ‘말의 쓰임’이 되고, 위 다양한 동훈자들은 모두 “말의 쓰임의 일종”이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다.

3) 異乎中國(이호중국) | 둥·꺄·에달·아. 중국(의 어음)과 달라서

‘乎’는 어조사이다. 이 문장에서 동사 ‘異’(다르다)에 후행하고 명사 ‘中國’에 선행하는 전치사(介詞/개사)로 국어의 처여격/향격 조사 ‘-에’와 대응한다. 참고. 乎 ①어조사, ②가호, ... ④에호....(張三植, 37면)

언해문에서 “둥꺄에 달아”로 처여격/향격조사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공동격 ‘-와/과 (다르다)’가 자연스럽다. 참고로 영어에서는 국어에서 탈격을 의미하는 전치사 (different) from-이다. 이와 같이 국어의 부사격조사와 대응하는 중국어·영어 등 다른 언어의 문법 형식들은 대표적 의미가 흔히 다르다.

이 구절은 ‘國之語音’에 즉시 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어의 어음과 달라서”로 이해해야하는데 기간의 다수 번역문에서 “중국어와 달라서”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語音’을 ‘말씀/말’로 해석한 자동적인 결과이다.

언해문의 협주에 “乎흥논아모그에 흥논겨체쓰는 字쫘 | 라”라 설명하였다. 현대어로 바꾸어 보면 “乎자는 ‘무엇에’하는 [말의 ‘무엇’] 곁에 쓰는 글자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향격조사/접미사 ‘-에’에 대한 소박한 설명이다.

<3> 與文字不相流通 文·문자·쫘·와·로서르스뭇·디아니홀·췌

해석: 한자로 상호간에 잘 통하지 않는다.

1) 與文字(여문자) | ·문·쫘·와·로. 문자(한자)로

‘與’는 ‘더불어’(영어 with)를 의미하는 전치사(개사)로 국어의 공동격조사 ‘-와/과’와 대응한다. 그러나 국어 표현에서는 향격/기구격 ‘-로’로 해석해야 자연스럽다.

‘文字’는 당시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상용(常用)한 유일한 문자였던 한자(漢字) 이외는 상상할 수 없다.¹⁶⁾ 어떤 연구자들은 여기 ‘文字’의 의미에 대한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였

15) 구어(口語) 혹은 비속어로 ‘지껄이다’·‘떠들다’·‘수다떨다’와 같은 단어들은 존재한다.

16) 고려시대 이래의 불경에 보이고 조선시대 서리(書吏)들이 흔히 썼던 이두/구결문자는 ‘안전한 문자’, 즉 문장을 완전히 기술할 수 있는 문자가 아니었다. 국어모어자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한문 문장에 고유어의 문법요소/접사를 첨가하는 한정된 기능의 문자였다.

는데 대개 근거없는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

언해문의 복합조사 ‘-와로’와 같이 ‘공동격조사 + 기구격’의 복합형식은 현대국어에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용례를 확인하기 극히 어려울 듯하다. 속격조사 ‘-의’와 복합은 간혹 볼 수 있다. 예. (그와) 나와의 관계.

2) 不相流通(불상유통) | 서르스뭇·디아·니힐·씨. 서로 잘 통하지 않아서

여기서 相(‘서로’)이 시사하는 2가지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자들의 해석이 구구하다. 그러나 선행하는 ‘語音’과 관련시켜 볼 때 ‘국어음’(고유어음)과 ‘(중국어음에서 유래한) 한자음’으로 이해해야 합당하다. 즉,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어음과 국어음이 상호 잘 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국어음은 한자로 잘 통할(표기할) 수 없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모든 문자의 필수 요소는 자형(字形)과 자음(字音)이다. 한자는 자의(字義)까지 표시한다. 그런데 한자는 음절단위 표시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음에 부재하는 음절(예. ‘것’, ‘끝’ 등)이나 단음(單音 ‘ㄱ’·‘ㄴ’ 등)을 표기할 수 없는, 아니면 표기하기에 심히 불리한 문자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현재나 잘 알려져 있다. 정인지의 서문에서 문자가 없는 외국어를 한자를 빌어 표기하는 것을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라 했다.

‘流通’은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통하다’, 즉 ‘잘 통하다’이다.

‘서르’(相)는 현대어의 ‘서로’로, 모음조화가 파괴된 예이다. 조선시대 문헌에서부터 ‘서로’가 등장한다.

언해문의 협주에 ‘流通’을 ‘홀러스뭇출씨라’로 해석하였다. 협주에는 대개 한자의 자석(字釋)을 제시했는데, 이와 같이 2자구를 직역한 예들은 드물다.

<4> 故愚民有所欲言 ·이런전·츠·로어·린百·빅姓·성이니르·고·저·홍·배이·셔·도
해석: 그런 까닭에 우리 백성들이 제언(提言)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1) 故(고).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언해문의 ‘이런전·츠·로’는 현대국어 ‘이런 까닭에’이겠지만, 필자의 국어 감각으로는 여기서 ‘그런 까닭에’가 보다 자연스러운 듯하다.

2) 愚民(우민) | 어·린百·빅姓·성. 우리 백성들

다수 연구자들은 ‘愚民’을 ‘어리석은 백성’ 혹은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무식한 백성’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한자로 국어음을 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창제”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愚民’은 한자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백성을 의미해야 한다.

‘愚’자의 기본 의미는 ‘어리석다’이다. 언해의 중세국어 번역어 ‘어리다’나 현대국어의 ‘어리석다’나, ‘무식하다’ 혹은 ‘글을 모른다(문맹)’는 의미는 없다. ‘우직하다’·‘고지식하다’

와 같이 문맹 여부와 상관없는 표현이다. ‘愚’(우)자는 자신이나 자식을 남에게 겸손하게 지칭하는 말(겸양의 표현)에 자주 사용하였다. 예. 우제(愚弟), 우둔(愚鈍)한 자식, 우견(愚見) 등. 인명에도 흔히 썼다. 예. 노태우(盧泰愚).

네이버 인터넷 한자사전에 ‘우민(愚民)’을 “백성이 통치자에 대하여 자신을 부르는 겸사 말”이라 정의하였는데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中文大辭典》(四 181d)에는 “愚民 無知之民也(‘知/알,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史記張釋之傳]”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無知’(무지)는 ‘文盲’(문맹)이 아니다.

여하간에 ‘우민(愚民)’은 절대군주가 자신의 백성들을 호칭하는 ‘의례적인 표현’으로¹⁷⁾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현대국어로는 ‘우리 백성’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듯하다.

3) **함(언)**. 고언(告言)/제언(提言)하다, (현대국어 표현으로) 제시(提示)하다

대다수 어저서 연구자들은 ‘함’(말씀, 말, 말하다)의 의미를 상고(詳考)하지 않은 듯하다. 함(언)·語(어)·話(화)·談(담)·說(설) 등의 訓(훈)이 《訓蒙字會(훈몽자회)》와 《千字文》(천자문) 등에 모두 ‘말씀, 말씀’으로 동일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있음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張三植(1386면)에 ‘함’의 첫째 주석이 “[說文] 直言曰言”(직언왈언, ‘직언’을 ‘언’이라한다)이다. ‘직언’은 현대국어에서도 사용하는 단어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소신껏 하는 말”이다. 《中文大辭典》(八 877)의 ‘言語’항에는 “發端曰言答述曰語”(발단왈언답술왈어, 시작하는 말이 함, 답하는 말이 語)라 하였다.¹⁸⁾

‘語’는 대개 일반적인 의미의 ‘말(언어)’을 의미하고, ‘함’은 ‘의사를 표현하는 말’ 혹은 ‘자신의 요구나 의견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의미한다. 둘 다 동사(‘말하다’)로도 사용된다. 《解例》에서 용례를 하나 보인다.

· 一起 | 聲, 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 (27a1 합자해)
| 에서 일어나는 ·와 — 소리는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아동들의 말(言)과 변두리 시골 말(語)에 간혹 있다.

어저서에서 ‘함’은 ‘上言’(상언, ‘백성이 임금에게 올리는 글’) 혹은 일반적인 의미로 ‘告言’(고언, 진정 혹은 청원의 말/글을 올리는 행위), ‘提言’(제언, 생각이나 의견을 내 놓음) 등을 의미하는 동사로 해석할 수 있다.

4) **니르다**. 이르다/일르다(告), 고(告)하다

언해문에서 ‘함’을 ‘니르다’로 번역하였는데 이 동사의 현대어형 ‘이르다’ 혹은 ‘일르다’는 동사와 형용사 몇 단어가 있다. ‘(서울에) 이르다/도달하다’(到), ‘(시간이) 이르다’(무), ‘(학

17) 현대국어에서 ‘바보’는 “이 바보야!”와 같이 애칭으로 쓰기도 하고, “이 바보 같은 놈아!”와 같이 부모가 자식을 꾸짖을 때 쓰기도 한다. 수십 년 전까지 중부지방에서 온순한 정신박약인을 ‘바보’라 부르고, 광폭한 자를 ‘미친놈/미치광이’라 불렀는데, 현재 일상 국어에서는 사라진 듯하다.

18) 사전에 의하면 ‘言語’라는 표현은 중국의 고전에 여러 번 나타난다. 20세기 초 이래 서양 언어학이 전래되면서 ‘language’의 번역어로 채택되었다.

생을) 타이르다(訓) 등. ‘윗 사람에게 알려다(告) 의미의 ‘이르다/일르다’(예. “선생님한테 일른다!/일러바친다!”)가 어제서 언해문의 ‘니르-’의 의미와 부합한다.

기간의 어제서 번역에서 대다수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¹⁹⁾ ‘틀’이나 언해문의 ‘니르-’는 일반적인 의미의 ‘말하다’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하다’는 의미로 ‘말하고자하다’의 뜻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5) 有所欲言(유소욕언) | 니르·고·저·홍·배·이·셔·도. 말하고 싶은 바가 있다
有 있다; 所 -바, -것; 欲 하고저하다, 하고 싶다

<5>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ㄹ·츄:내·제·쁘·들 시·러·퍼·다:몬·홍·노·미·하·나·라
번역: 그러나 그 뜻을 완전히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1) 而(이). (접속사)

而(말이을 이)자는 다양한 접속기능을 발휘한다. 국어로는 동사/형용사의 다양한 연결 어미(‘-하여’, ‘-하고’, ‘-에서’ 등등)와 문장접속부사(‘그리하여’, ‘그런 즉’ 등)의 기능이다. 이 문장의 언해문에서는 ‘而終’의 번역어인 ‘ㄹ·츄·내’가 문장접속부사라고 볼 수 있고, 선행하는 절의 동사 ‘스·뭇·디아·니·홍·씨’의 어미 ‘-홍·씨’에 연결의 의미가 표현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문장 접속어 ‘그러나’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하다.

2) 終(중) | ㄹ·츄:내. 끝까지, 완전히, 온전히, 모두

‘終’자의 통상적인 훈음(訓音)은 ‘마침중’ 혹은 ‘끝중’이지만, 여기서는 부사로서 ‘완전히’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참고. 終 다할중(窮也), 끝중(末也) (張三植 1127); 終 ⑥成也. 盡也. 《中文大辭典》(VII 334).

언해문에 ‘ㄹ·츄:내’로 번역되어 있어서 다수 연구자들이 현대어 대응형 ‘마침내’로 번역하였는데, 이 부사는 현대국어에서 후행하는 서술어 “...이 많다”와 적절하게 호응하지 않는다.

3) 不得伸(불득신) | 시·러·퍼·다:몬·홍. 펼 수 없는, (글로) 표현하지 못할

‘得’자는 기본 의미가 ‘얻다’이지만, ‘능력’의 의미를 추가하는 조동사(영어에서 can과 유사)와 같은 기능도 하여, ‘得伸(득신)’은 국어로 ‘펼 수 있다’이며, 어두에 부정사 ‘不’(불)이 첨가되어 ‘펼 수 없다’를 의미한다. 참고. 得 猶能也.可也. 《中文大辭典》(三 1630)²⁰⁾

그런데 한자어 ‘伸(신)’이나 국어의 ‘퍼다’나 다양한 물리적 동작(예. 책을 퍼다, 팔다리를 퍼다)과 아울러 정신적 동작(논리를 퍼다. 웅지를 퍼다.)을 의미할 수 있다.

19) 정우영(2018) 9면 참고.

20) 국어사전에 ‘득신(得伸)을 ‘뜻을 퍼다. 소송에 이기다’로 풀이하였다. 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에 “得伸其情 1. 그 뜻을 펼 수 있음, 2. 그 뜻을 펴게 됨”이 수록되어 있다. 출전은 불명.

이 서문은 문자 창제의 목적을 서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得伸(득신)’을 “글로 펼 수(표현할 수) 있다”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4) 시러. 완전히, 온전히, 충실히

언해문에서 ‘得伸’을 ‘시러펴다’, 즉 ‘得’을 ‘시러’로 번역하고 협주에 “得득은시를씨라”라하여,²¹⁾ ‘得’(얻다, 능하다)을 의미하는 동사 원형 ‘실다’ 혹은 ‘실다’의 부사형인 듯하다. 그런데 15세기 문헌에 오직 부사 ‘시러’(得, 얻어, 能히)와 강조형 ‘시러곰’만 등장하고, 동사 ‘실다’/‘실다’는 나타나지 않는 듯, 고어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사전에 등재된 ‘실다’는 ‘짐·책임 등을 지다(負)’로 현대국어 ‘실다’와 동일한 의미이다. 물론 ‘실다’(負)에 ‘얻다, 능하다(得)’의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는 현재 90세 이상 되는 중부지방의 보수적인 연로자들의 구어(口語)에서 간혹 들을 수 있는 의사한자어(疑似漢字語)²²⁾ 어간의 형용사 ‘실(實)하다’(단단하고 튼튼하다, 실속있고 넉넉하다)의 어간과 같은 음성형식의 부사형으로 ‘충실히’의 의미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5) 其情(기정) | 제뜻. 그 뜻,

‘情’은 이 문장에서 언해문의 번역 ‘뜻’의 현대국어형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情’과 ‘뜻’의 기본 의미를 현대국어 모어자(母語者)들이 대개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情’의 전통적인 훈(訓)은 ‘뜻’이다. 이것부터 대다수 현대인들은 ‘情’의 의미로 생소하게 느낄 듯하다. 현대국어에서 ‘정’(情)은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의 뜻으로만 이해할 뿐, ‘뜻(생각)’이나 ‘사실’과 같은 의미는 생각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이 자(字)가 포함된 상용(常用) 한자어에서 전자(前者)의 의미를 시현하는 ‘정’(情)은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이 글자가 다른 의미를 시현하는 단어들에서는 그 뜻을 옳게 이해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예를 들면, 한자를 특별히 학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인정’(人情)·‘다정’(多情)·‘순정’(純情)과 같은 단어에서 ‘정’(情)의 의미는 어렵지 않게 추측하지만, 상당한 지식인들 중에서도 ‘국정’(國情), ‘사정’(事情)·‘실정’(實情)·‘정보’(情報)·‘정황’(情況)과 같은 상용 단어에서 ‘정’(情)이 시현하는 의미를 선뜻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듯하다.

‘情’자의 훈인 ‘뜻’(<뜻)은 현대국어에서 ‘의미’와 더불어 ‘생각’·‘의사’의 뜻도 나타내는 사실은 누구나 조금만 숙고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나?”에서는 ‘의미’(meaning)이고, “이것은 선생님의 뜻이다”에서는 ‘생각·의사’(thought)이다.

《해례》에는 ‘情’자가 단 3회 출현하는데, 이곳 어제서에 1회와 정인지서문에 2회이다. 후자를 아래 인용한다.

2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해문의 협주에서 동사/형용사는 ‘-르씨’로 지칭하였다.
22) 현대국어에서 통용되는 고유어와 한자어 중에는 상호간에 음성형식과 의미와 문법적(형태론적) 기능이 유사한 듯이 보이는 형식들이 소수 존재한다. 예. 단(單)돈, 장(長)대, 신(媿)아버지, 혈(獸)값 등. 이 형태소들은 대개 한자어 기원이었을 듯하지만 일부는 우연히 한자어와 일치하는 고유어로 의사한자어(疑似漢字語)가 분명하다. ‘시(媿)아버지/시부(媿父)’의 ‘시(媿)’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한자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전혀 모르는 글자이다. ‘실하다’의 어간 ‘실(實)-’도 의사한자어인 듯하다.

(1)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 (30b6 정인지서문)

그리하여 옛 사람이 소리에 因하여(근거하여) 글자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만물의 情을 통하였다.

(2) 以是解書, 可以知其義.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31a5 정인지서문)

이것(정음)으로 글(한문)을 풀이하[여 놓으]면 그 義(의 '뜻/의미')를 알 수 있고, 이것으로 송사(訟事)를 들으면(판결하면), 가히 그 情(정, '사정, 정황')을 得(득 '파악')할 수 있다.

위 첫째 인용문에서 '情'은 우선 선행하는 구절에서 언급한 글자의 창제 원리, '因聲'(소리에 따라서)으로 미루어 '만물의 명칭', 즉, 현대언어학의 표현으로, 음성형식(音聲形式)과 그 음성형식에 수반되는 '의미' 및 정황(情況)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²³⁾ '만물의 정'을 현대국어로 '만물의 뜻'으로만 해석하면 선행 절 "소리에 因하여 글자를 만들다"와 후행 절 "만물의 情을 통하다"의 논리적 연결을 원만히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인용문의 첫째 절에는 '의미'의 뜻을 '義'자로 표현하였고, 후행 절에서는 '情'이 현대국어로 '사정(事情), '정황(情況)·'상황'(狀況)·'경위'(經緯)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참고. 義(의). 뜻, 의미.

《해례》에는 현대국어 '뜻, 의미'의 의미로 '義'(옳을 의)자가 24회 등장한다.²⁴⁾ 대다수가 설명 대상 자체의 뜻을 지칭하는 용어(즉, "...의 의미는 ...이다"에서 '의미')로가 아니라, "어떤 '의미적 범주' 혹은 '기능적 범주'에 속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²⁵⁾ 몇 개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其因聲加劃之義皆同 (6a2 제자해)

그 소리에 따라 획을 가한 의미는 모두 같다.

(2) 土無定位而寄旺四季之義也 (7a7 제자해)

토(土)는 일정한 방위없이 4계절에 붙어서 왕성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3) 一十千之一其圓者, 取其初生之義 (9b8 제자해)

一十千에 그 동그란 것(즉, '·')이 하나인 것은, 처음으로 생겼다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4) 初聲有發動之義 天之事也 (12b1 제자해)

23) 모든 문자의 기원은 "음성으로 표현되는 언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기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4) 참고로, 현대국어 상용 한자어에서는 '의미'의 의미로 '義'자보다 근원적으로 '사람의 내적 생각/의미'를 시현하는 '意'(의, 뜻의)자를 자주 볼 수 있다. 예. 意味(의미), 意思(의사), 意中(의중), 創意(창의), 失意(실의) 등. 《해례》에는 '意'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25) 참고. 현대의 국어모어자들은 현대국어 한자어에서 '義'자음의 기본의미를 '의미'보다 '의(義)롭다', '마땅한 도리'의 의미로 더 잘 이해한다. 상용어 예. 정의(正義), 불의(不義), 의인(義人), 대의명분(大義名分) 등.

초성에는 발동하는 의미가 있으니, 하늘의 일이다.

(5) 知斯五義聲自明(14a4 제자해 訣)

이 다섯가지 의미를 알면 소리는 자명(스스로 분명)하다.

(6) 精義未可容易觀(15b8 제자해 결)

자세한 의미는 쉽게 알 수 없다.

(7)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31b8 정인지서문)

3극의 의미와 이기의 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6) 者(자) | ·놈. ‘-것’, ‘-따위’ (의존대명사)

어제서에서 ‘者’는 화제(話題)인 ‘語音’의 대용(代用)으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합당하다.

지난 1백여년간 거의 모든 어제서 연구자들이 ‘者’를 ‘사람’으로 이해하고 “말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로 번역하여 왔다. 그리하여 어제서의 내용을 순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였다.

어제서의 ‘者’가 ‘사람’이 아니라 ‘-것’ 또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제시한 논문은 鄭堯一(2008)인 듯하다. 이 논문에서 저자 鄭교수는 우선 우리나라 고전 연구자들이 잘못 해석해 온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면서 “고전 자료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어서 ‘者’자가 사물을 지칭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된 예들을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고전 자료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아울러, ‘者’에 대응하는 언해문의 ‘놈’은 15세기 이래의 언해 자료에서 “평어적(評語的)”, 즉, 일반적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 현대국어 ‘-놈’과 같이 평가하여 부르는 비하어(卑下語)인 사실을 여러 예를 들어 확인하고, 언해문에 ‘놈’으로 번역한 어제서의 ‘者’가 ‘사람’을 의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⁶⁾

현대국어에서 한자어 형태소 ‘자’(者)는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성 의존형태소로만 사용한다. (예. 이 자, 그 자, 저기 가는 자.) 그러나 전통적인 한문에서는 ‘者’가 고유어의 ‘-것’과 같이 모든 사물의 대명사로 빈번히 쓰인다. 《訓民正音》에 ‘者’자가 36회 등장하는데, ‘사람’을 지칭하는 어구는 정인지 서문에 3개 문장 5개 어구에 불과하고 (아래 인용문 6-8), 그 외 30 처에서는 모두 어떤 자구(字句)에 첨가되어 그 자구가 의미하는 성질을 지닌 개체를 지칭한다. 예를 들면, ‘中龔’(중성)은 ‘중성’ 자체를 의미하고, ‘中龔者’(중성자)는 ‘중성’의 성격을 가진 개체를 지칭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국어 번역에서는 불필요하거나 번역하기 거북한 경우가 흔하다. 아래 인용문의 번역에서 국어에서 ‘-것’을 붙일 수 없는 곳은 꺾쇠 괄호로 묶어 <따위>로 표시하여 보인다.

(1) 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捨陰陽而何之. (5a5 제자해)

무릇 생명이 있는 종류(種類)로 천지간에 있는 것들은 음양을 버리고서

26) 이 논문은 여러 문헌의 용례에 근거하여 ‘者’字의 의미를 구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서의 다른 문제들에 대한 고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 어디로 갈 것인가.
- (2) ○連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者，(8b4 제자해)
○을 순음 아래 이어서 쓰면 순경음<따위>가 된다.
 - (3) 中聲者，一深一淺一闊一關，(11b3 제자해)
중성<따위>들은 하나가 깊으면 하나가 얇고, 하나가 열리면 하나가 닫힌다
 - (4) 動者，天也。靜者，地也。兼互動靜者，人也。(12a4 제자해)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고요한 것은 땅이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겸한 것은 사람(중성)이다.
 - (5) 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一ㄱㅇㅏㅑㅓㅕ是也。(24b6 합자해)
중성이 동그란 것(圓者/원자)과 가로진 것(橫者/횡자)이라면 초성의 아래 있으니, 、一ㄱㅇㅏㅑㅓㅕ가 이것이다.
 - (6)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31a6 정인지서문)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담긴 뜻을 이해하기 어려움이 근심이었고,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사람은 (사건의) 곡절에 통하기 어려움이 병통이었다.
 - (7) 故智者不終朝而會，愚者可浹旬而學(32a2 정인지서문)
그리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이 끝나기 전에 터득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 (8) 庶使觀者不師而自悟。(32b7 정인지서문)
그리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이도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

<6> 予爲此憫然。 내·이·를 爲·왕·ㅎ·야·어엿·비너·겨

번역. 내가 이에 대하여 딱하고 안타깝게 여겨서

1) 爲此(위차) | ·이·를 爲·왕·ㅎ·야. 이를 위하여, 이에 대하여

‘爲’는 동사로서 ‘하다’, ‘되다’, ‘다스리다’ 등의 의미와 개사(介詞 전치사)로서 ‘...을 위하여’, ‘...에 대하여’ 등의 의미를 표현한다. 여기서 ‘此’(이것)에 선행하는 전치사이다. 언해문 여기서는 ‘爲’의 자석(字釋)이 없는데, 뒤에(언해문12a1) 순경음(脣輕音)의 설명 협주에 “爲왕·논드윅·씨라”이다. 즉, 동사 ‘되다’이다.

언해문의 “내·이·를 爲·왕·ㅎ·야”는 현대국어 “내가 이것을 위하여”인데, 현대어에서는 이 문맥에서 적절하지 않은 어절이다. 현대어에서는 “이것에 대하여”가 적당하다.

참고로 현대국어의 일반적인 표현 ‘...에 대하여’(처-여격조사 선행)가 문헌에 ‘...을 대하여’(대격조사 선행)로 나타난다.

2) 憫然(민연) | :어엿·비너·겨. 딱하게 여겨서

어여쁘다 ‘보기에 답답하고 딱하여 안타깝다’(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

언해문의 ‘어엿쁘다’가 현대국어 ‘어여쁘다’와 대응되는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변화된 예로 자주 언급된 단어이다.

<7> 新制二十八字. 새·로·스·물·여·덥·글·자·를·밍·ᄃᆞ·노·니

번역. 스물여덟 글자를 새로 만들었다.

1) 新制(신제) | 새·로·...밍·ᄃᆞ·노·니. 새로 만드니.

2) 制(제) 製(제). 협주에 “制제논밍ᄃᆞᄃᆞ실씨라”하였고, 언해본의 제목 “世宗宗御영製정훈민정음”의 협주에 “製정글지슬씨”라 하였다. 즉, ‘制’자의 의미는 ‘만들다’, ‘製’자는 ‘글짓다’로 설명하였다. 참고. 制字解(제자해)

‘制’와 ‘製’는 ‘만들다, 짓다’ 의미를 공유하지만, 현대국어 상용 한자어에서 ‘製’자는 주로 ‘만들다’의 의미, ‘制’는 주로 ‘제도(制度)’를 의미한다. 예. 製作(제작), 製造(제조), 製品(제품), 外製(외제); 시간제(時間制), 學制(학제).

<8> 欲使人人易習. 사·름:마·다 :히·여:수·비·나·겨

번역. 사람 마다 쉽게 익히게 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히서

- 1) 欲(욕). 하고저 하다, 하고 싶다
- 2) 使(사) | :히·여. ...로 하여금 ...하게 하다
- 3) 人人(인인) | 사·름:마·다. 사람마다
- 4) 易習(이습) : 수·비·나·겨. 쉽게 익히어
- 5) 使...易習 | :히·여:수·비·나·겨. ...로 하여금 쉽게 익히게 하여

<9> 便於日用耳. 날·로·부·메 便·편·안·한·귀·하·고·저·홍·썩·ᄃᆞ·미·나·라

번역. 나날이 사용하는데 편하게 하고자할 뿐이다.

1) 便(편) | 便·편·안·한. 편하다. 편리하다

현대국어에도 ‘편안(便安)하다’가 통용되지만, 여기서는 ‘편하다, 편리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듯하다.

2) 於(어) | -에. 개사(介詞 전치사) 기능의 어조사이다. 국어에서는 처여격조사 ‘-에’에 해당.

3) 日用(일용) | 날·로·부·뭉. 일상 씌, 일상 사용

4) 耳(이) | 썩·ᄃᆞ·미·나·라. 따름이다. 뿐이다.

‘耳’(이)자는 ‘귀’의 의미와 더불어 문장접미사 기능의 어조사로 ‘따름이다’, ‘뿐이다’를 표현한다.

《(해례본)훈민정음》 책에서 어제서가 실린 첫 장이 망실되어 전 소유자가 다른 기록

에 의거하여 필사·보충하였는데, 마지막 글자를 한문의 일반적인 문장종결형식인 ‘矣’ (의)자로 잘못 바꾸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책에 수록된 어제서이다. 이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5) 어절 <8>과 <9>는 “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 단일 문장으로, 국어의 구조로 바꾸어 해석한다면 ‘人人易習’하여 ‘便於日用’ 使함을 ‘欲(욕)’할 ‘耳’이다. 즉, “사람마다 쉽게 익히게 하여 일상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함을 바랄 뿐이다.”이다.

후 기

2018년에 필자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주체한 “훈민정음해례의 표준번역”(?)을 위한 학술대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그 때 동국대 정우영 교수의 발표, 기간된 40여종의 어제서 번역본의 면밀한 비교 연구를 들으면서, 필자가 과거 한 때 의문을 가졌던 어제서 내용 관련 문제를 대하게 되었다. 그 후 어제서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본고를 집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핑계로 3년여를 쌓아 두고 잊었다가 이번에 국어사학회의 요청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이 발표 후 필요한 격식을 갖추어 어느 학술지에 발표할까 한다.

참고 논저

강신항(1987/2014),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강신항(2003/2007), 〈‘正音’에 대하여〉, 韓國語研究(韓國語研究會)/國語學散稿,9-26.
 김주원(2013), 《훈민정음, 사진과 기록으로 읽는 한글의 역사》, 서울 민음사.
 송기중(2014), 훈민정음해례의 음소·음성학, 《한국어사 연구》 국어사연구회, 59-94면.
 安秉禧(2007), 《訓民正音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李崇寧(1986), ‘말’과 ‘물씀’의 意味識別에 관하여, 《東泉趙健相先生古稀紀念論叢》, (2011) 《心岳李崇寧전집9》 심악이승녕전집 간행위원회편, 537-563면에 재록.
 鄭堯一(2008), 《訓民正音》「序文」의 ‘者’·‘놈’의 意味와관련한 古典 再檢討의 必要性 論議 --‘者’와 ‘놈’은 ‘것’ 또는 ‘경우’를 뜻한다--, 《語文研究》 36-3, 269-295면.
 정우영(2018), 《훈민정음》 해례본의 현대어 표준 번역을 위하여 --제1부 ‘세종어제 서문’을 중심으로--, 국립한글박물관 세미나 자료.
 홍윤표(2006), 《한글》, 서울 세창출판사

Lee(2012): Hyeon-hie Lee & Yeon Lee,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Preface to Hunmin jeongeum by King Sejong," Scripta 2012: Interations of Writing Systems. 12pp.

A New Interpretation of the Royal Preface of the *Hunmin cheong'eum* 訓民正音,

The book, *Humin cheong'um, the Proper Sounds [Alphabets] to Instruct the People*, in which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creation of the Korean alphabet

訓民正音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
 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
 為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
 使人人易習便於日用矣
 牙音如君字初發聲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내가 이를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이
 아득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기에 편리하게 하리라 할
 판이니 이리